

LGU+, AWS 클라우드 기반 5G MEC 자율주행 로봇 실증

〈아마존웹서비스〉

LG전자 개발 '5G SA' 단말 장착 주변 환경 측정하여 장애물 회피 다수 로봇 관제, 협동작업 수행

LG유플러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 일체형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을 활용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했다고 14일 밝혔다.

로봇이 배달, 호텔, 방역, 안내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격과 전력소비를 낮추는 게 관건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로봇(브레인리스 로봇)'은 주로 LTE 이동통신을 통해 구현됐지만 높은 지연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감지와



MEC에 탑재된 자율 주행 엔진을 통해 LG전자 배송로봇들이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장애물 회피 등 안정적인 주행이 어려웠다.

이번에 LG유플러스는 서울시 서초구 LG전자 R&D센터에서 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과 LG전자의 로봇서비스를 통합 수용한 일체형 MEC

를 통해 클라우드 로봇의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실증했다.

클라우드 로봇에는 LG전자가 개발한 5G SA(단독모드) 산업용 단말이 장착됐다. 이 로봇은 건물벽이나 출입문 등 주변 환경을 측정하여 지도를 생성

하고, 움직이는 장애물을 인지하여 회피하는 등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MEC에는 클라우드 로봇의 주행엔진이 탑재되어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했다. 클라우드 로봇이 보내온 대용량의 영상 등 센서데이터는 실시간으로 MEC플랫폼에 전송·처리되었고, 일반 로봇과 대등한 자율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MEC에 탑재된 군집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다수의 로봇을 관제하여 협동작업을 수행했다.

양사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될 산업에서 클라우드 로봇틱스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한화큐셀

獨서 셀 특허 우수성 인정

태양광 모듈 제조사 라이선스 계약

한화솔루션 그린에너지 부문 한화큐셀이 최근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이 계약으로 해당 제조사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 사용 및 해당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의 생산, 판매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해외 제조사로부터 특허 유효성과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만들었다.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에 반사층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관련 기술이다.

/양성운 기자

볼보-SKT, 차세대 커넥티비티 서비스 첫 선

신형 'XC60' 5개 트림으로 출시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적용 티맵·누구·플로 연동 韓시장 특화

볼보가 새 XC60에 SKT와 함께 만든 국내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처음 선보인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4일 신형 XC60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공개했다.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는 볼보코리아와 SKT가 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커넥티비티 서비스다. 차량용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기반으로 티맵과 누구, 플로와 연동해 한국 시장에 특화했다.

이 서비스는 '아리아'라는 호출 명령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공조기와 내비게이션, 통화와 음악 추천 등이다. 뉴스와 날씨 등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연결만 하면 스마트홈과도 연결할 수 있다.

볼보 온 콜도 적용한다. 비상사나



볼보 XC60

사고시 즉시 서비스센터로 연결하는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볼보 카스 앱도 사용 가능하다. 차량 잠금과 해제 등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헤이 볼보 앱'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XC60은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만 5개 트림으로 출시된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인 B5 및 B6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등이다. 출고가 6190만원

에서 8370만원, 5년/10만km 무상 보증 기간과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볼보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부담없이 제공하기 위해 5년 LTE 무료 이용과 플로 1년 이용권도 선물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IT기술과의 융합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핵심 마켓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높은 안목을 지닌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스웨디시 럭셔리 브랜드로



볼보에 적용된 통합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볼보자동차코리아

서 한국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ICT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과 협업을 진행했다. 신형 XC60이 제시하는 더욱 안전한, 그리고 스마트한 주행을 통해 진정한 모빌리티의 진화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신형 파나메라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최고의 스포츠세단 포르쉐 파나메라를 통해 자사의 기술력과 고급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

한국타이어는 포르쉐의 4도어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에 최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Z'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5년 크로스오버 SUV 모델 '마칸'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시작으로 포르쉐와 처음 파트너십을 맺었다.

신형 파나메라에 공급하는 '벤투스 S1 에보 Z'는 고성능 스포츠카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역동적 주행성을 가감 없이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코나아이-마왕족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맞손

코나아이가 유명 프랜차이즈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나아이는 바비큐족발 프랜차이즈 마왕족발과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 마왕족발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코나아이 변동훈 부사장, 이민형 콜라겐랩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나아이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공공배달서비스 '배달e음'에 마왕족발 가맹점을 입점시키고 바이럴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함께 펼친다는 계획이다.

배달e음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기반의 공공배달 서비스다.

/강준혁 기자

SKIET, 'RE100' 가입... 친환경 기업 전환 속도

국내 모든 사업장 친환경 전력 도입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가 친환경 기업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SKIET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인 'RE100' 가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RE100이란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 RE100 위원회는 회원 가입을 신청한 기업들의 RE100 가입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다. SKIET는 지난해 11

월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SKIET는 이번 RE100 가입을 계기로 친환경 전력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IET는 올해부터 충청북도 증평, 청주 등 국내 모든 사업장과 가동을 앞둔 폴란드 실롱스크주 공장에서 100% 친환경 전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외 단일 사업장에서 100% 친환경 전력만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SKIET가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으로 공장 지붕을 활용해 7만m²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친환경 전력을 도입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IET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 세계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60%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RE100의 요구 수준을 5년 앞당겨 달성하는 것이다. SKIET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거점에서 친환경 전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사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를 70% 감축한다.

SKIET가 생산하는 주요 품목인 LIBS(리튬이온전지분리막)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다. 유럽연합위원회가 EU(유럽연합) 분류체계로도 지정하고 있다. EU 분류체계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 등의



중국 창저우에 위치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중국 LIBS 공장

목록이다.

SKIET가 지난해 판매했던 LIBS는 약 5억m²에 달한다. 이는 전기차 약 7만대 분량이다. 내연기관 차량 76만대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약 94만톤에 달한다.

노재석 SKIET 대표는 "사업의 성장을 통해 업계 1위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전환에서도 독보적인 1위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